

광주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 소상인 “환영” 유통업체 “억울”

광주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안 입법예고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내 입점 상인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측은 “상생에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며 “광주가 발빠르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지역 상인들은 예상을 했다면서도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을 포함한 월 2회’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방문 고객이 상대

적으로 적은 평일이 월 1회 정도 쉬는 것을 내심 원했지만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일요일 2회 휴업이 결정될 경우 영업손실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때문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입법 과정을 지켜본 뒤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도 똑같은 지역 영세상인인데 주말에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 억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41)씨는 “로드숍을 운영하다가 좀더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대형마트에 들어왔는데 주말장사는 이제 물건너 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 17일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현 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관련 조례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어 입법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일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둘째·넷째주 일요일 월 2회 문을 닫는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역 내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 1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4곳은 빠르게 다음달 넷째주 일요일인 25일 첫 휴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하이~ 판다” 2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류민열) 5층 빈폴진 매장에서 중국 유명 캐주얼브랜드인 ‘하이 판다’와 콜라보레이션(협업)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지난해 中企대출 5조2천억원

광주은행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12월말 원화기준 중소기업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은행권 원화 중소기업대출이 71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광주은행은 4700억원으로 66.2%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지역 은행권 원화 중

소기업대출 잔액은 18조6530억원으로, 이중 광주은행은 5조2380억원을 차지해 점유비가 전년 말 26.6%에서 28.1%로 1.5%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타지역에 비해 지역산업의 설비투자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이클러스터론, 하이서브론, B2B 씨포트 등의 상품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은행측은 분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업영업전략부 이정화 부장은 “광주은행이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중점으로 한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추진하고 특히 공생경영의 차원에서 영세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호(SOHO)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호텔식 오피스텔 ‘골든 힐스타워’ 분양

지앤디 도시개발, 광천동에 482세대

지앤디 도시개발(주)이 교통과 쇼핑의 중심지인 광주신세계 백화점 사거리에 호텔식 오피스텔 골든힐스타워 분양한다.

골든힐스타워는 기존 오피스텔과 달리 아침식사, 세탁 서비스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시설로 지하1~지상13층 총 482세대 규모로 전용면적은 41.25㎡, 45.54㎡로 구성됐다.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빌트인 가전·가구, 시스템 에어컨 등을 갖춘 풀옵션 오피스텔로 입주자의 건강·문화·취미생활까지 고려해 건물 옥상에 조깅트랙과 테니스 코트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문화아카데미에서는 필라테스, 요가, 음악교실, 언어스피치, 외국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포츠 센터에는 전문 트레이너를 배치해 휘트니스, 실내 골프, 탁구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입주자들의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예정이다.

바쁜 입주민을 위해 아침식사는 물론 세탁, 심부름 대행, 택배 보관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앤디 도시개발(주)이 교통과 쇼핑의 중심지인 광주신세계 백화점 사거리에 호텔식 오피스텔 골든힐스타워 분양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취업난에 빛더미... 팍팍한 20대

체감 생활형편지수 70... 금융위기 이후 최저

사회에 막 발을 들여 넣은 20대 체감 생활형편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했다.

높은 취업 문턱 탓에 소득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으나 생활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 생계형 부채는 빠르게 증가한 탓이다.

21일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CSD)’ 결과를 보면 30세 미만 소비자의 현재생활형편 CSI는 지난 1월 기준 70을 기록했다. 2009년 1월 6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생활형편 C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생활이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

미이고 100을 웃돌면 그 반대다.

30대 미만 소비자의 현재생활형편 CSI는 전체 평균인 83보다도 13포인트 떨어졌다.

6개월 후 전망도 마찬가지다. 30대 미만의 생활형편전망 CSI는 83으로 전체 평균 90을 7포인트 밑돌았다. 젊은 세대의 체감 생활형편이 나빠진 것은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청년층 취업기회는 여전히 적어 소득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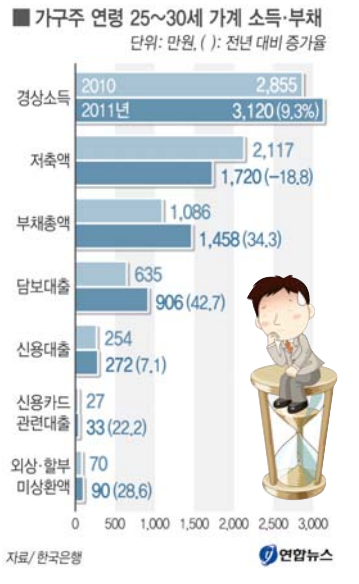
지난달 30대 미만의 취업기회전망 CSI는 70으로 전체 평균 83에 크게 미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

난해 공식 실업률은 3.4%로 완전고용에 가까웠으나 체감실업률은 11.3% 특히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바늘구멍’ 취업문(門) 속에서 빛은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 좁은 어깨를 더욱 짓눌렀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가계구 연령이 25~30세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평균 31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3%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총액은 1458만원으로 2010년에 비해 34.3% 급증했다.

소득보다 빛이 4배 가량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부채 종류별로 보면 담보대출이 635만원에서 906만원으로 42.7%나 올랐다.

담보대출 용도는 거주주택 마련



44.3%, 생활비 마련 16.8%, 전(월)세 보증금 마련 16.3% 순이었다.

그러나 거주주택 마련 비중은 2010년(46.0%)보다 줄어든 데 반해 생활비 마련은 전년(2.4%)에 비해 7배 급등해 20대 생활이 매우 팍팍해졌음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전셋값 변수는 서울대 합격자 수”

1명 늘때마다 강남 197만원 올라

서울대학교 진학자 숫자와 주차장 등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전셋값을 좌우한다는 ‘과외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소속 윤병우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교육환경과 아파트 전세가격간의 관계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8~2010년 2008~2010년 강남3구 아파트(주택형 3개 이상) 단지 1225개를 대상으로 전세

가격과 각종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내용으로 구내 행정동에서 서울대 합격생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전세가격은 19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학교 전입률이 1% 늘어날 때, 대학진학률이 1% 오를 때마다 전세가격은 각각 90만원과 86만원이 올랐다. 보습학원이 1개 늘어날 때 전세 상승폭은 8만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했다.

생활편의변수 중에서는 주차공

간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다. 단지 내 평균 주차가능대수가 1대 늘어날 때마다 전세가는 1억488만원 급증했다. 또 욕실이 1개 늘어나면 8669만원, 방이 하나 늘면 7901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중앙·지역난방 아파트는 개별난방보다 4604만원 더 비쌌다.

전세가격을 끌어내리는 하라변수로는 건물노후도 등이 꼽혔다. 입주연도에서 1년이 지날 때마다 전세가격은 247만원 떨어졌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과 중학교에서 1m씩 멀어질 때마다 각각 6만원과 5만원씩 하락했다.

/연합뉴스

“조세감면 연장 해주요”

전국농협조합장 정부에 건의

전국 농협합동조합장들은 2012년 말에 끝나는 조합 예탁금 이자와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감면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21일 건의했다.

농협 조합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 시한 연장도 요구했다.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업생산과 농가소득이 줄어 도·군간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농협의 농산물 유통 등 농업인 실익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장들은 또 지역농협 농산물 가공공장이 각종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출산 지원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축산발전기금을 늘려 사료가격 안정을 지원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연합뉴스

전복사업으로 부자되세요!

전남 완도에 있는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완도전복가공산업활성화사업단은 지식경제부 지원 RIS 사업단으로서 전복으로 성공하려는 기업이나 창업자를 위해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면서 중국, 일본 등 수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복 건제품, 통조림, 수출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이제 완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하세요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면, 사무실, 파일럿프랜트,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통조림, 연질캡슐 생산라인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등 해외투자 기업체의 국내이전을 준비중인 사업가분
- 청년 취업희망자, 은퇴자 소규모창업 희망자 분
- 재외 동포, 중국인, 일본인 등 해외 기업가 완도에서 사업하실분
- 북경, 상해 정주 수산물 매장 진출을 희망하시분 많은 연락과 상담 바랍니다

공정전경 통조림·연질캡슐 설비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산업센터 부설 완도전복가공산업활성화사업단

문의전화 : 061-550-1717
 메일 : realgon85@gmail.com · 홈페이지 : www.wapic.co.kr